

제주 출신 고민정 A대표팀 첫 발탁

대한축구협회, 동아시아컵 참가 여자 대표팀 명단 발표
도남초 졸업·WK리그 활약... 임선주·강지우 이어 세번째

제주출신 여자축구 스트라이커 고민정(21·창녕WFC)이 마침내 A대표팀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임선주(32·인천제철)와 강지우(22·세종스포츠토토)에 이어 세번째로 성인 국가대표가 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는 7월 열리는 2022 EAFF-EI 챔피언십(동아시아컵)에 참가할 여자대표팀 24명 명단을 30일 발표했다.

여자대표팀은 최근 열린 캐나다 원정경기 참가 선수 중에서 2명이 빠지고 3명이 새로 발탁됐다. 소속팀의 차출 허락이 나지 않은 이금민(브라이튼)과 소속팀 사정으로 이정민(보은상무)이 제외됐다. 대신 부상에서 회복한 이민아(인천현대제철)가 다시 발탁됐고, 김윤지(수원FC)와 21살의 신예 고민정이 이름을 올렸다.

고민정은 도남초를 졸업하고 울산 현대청운중, 울산 현대고, 울산 과학대 재학 중이던 지난해 12월 2022 여자실업축구(WK리그) 신인 선수 선발 드래프트를 통해 창녕 WFC 팀에 입단했다. 고민정은 그동안 U13, U16, U17, U20 등 연령

별 국가대표로 뛰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수선수상, 2014년 춘계 여자축구연맹전 우승, 23회 여왕기 우승의 주역으로 여왕기 득점상을 받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실업리그로 진출한 첫해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인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 세종스포츠토토 원정경기에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뽑아내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고민정이 A대표팀에 처음 발탁되면서 제주출신으로는 대표팀 발탁이 수비수 임선주와 강지우에 이어 세번째 성인 국가대표로 뽑혔다. 도남초-울산현대청운중-울산현대고-고려대를 졸업한 강지우는 AFC U-19 여자 챔피언십 득점왕을 차지하며 대한축구협회 선정 2019년 여자부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강지우는 2020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대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번 출전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EAFF-EI 챔피언십 여자부 경기는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가시마에서 열린다.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대표팀이 참가해



4개팀 풀리그로 우승팀을 가린다.

풀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19일 일본과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23일 중국, 26일 대만과 맞붙는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EAFF-EI 챔피언십은 지난 2003년 창설됐으며, 여자부는 2005년 열린 2회 대회부터 시작했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그동안 7차례 열린 이 대회에서 2005년 첫 대회 때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후에는 준우승과 3위, 4위를 각각 두차례씩 기록했다. 직전 대회인 2019년 부산 대회에서는 일본에 이어 준우승에 올랐다.

조상윤기자

제주에도 축구 하부리그 팀 생기나 <하> 당위성 및 과제

여건 성숙 단계... 도지사 등 결정이 핵심

축구인 의기투합·자원 확보 등 리그 육성 토양 양호
연간 팀 운영 예산확보·지역 공감대 형성 선결돼야

제주는 인구수에 비해 전통적으로 축구실력만큼은 나름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과거 김희천부터 최진철, 홍정호, 지동원, 임창우 등 많은 국가대표들을 배출했다. 여자축구대표팀에 주전 불박이 수비수 임선주(인천제철)가 활약하고 있다. 제주서초와 제주선발 여초등부 등은 이미 전국 최강의 자리에 선 경험이 있다. 최근까지 그 위세는 여전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해 프로팀에 입단하는 선수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축구인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K1 또는 K2리그 프로팀에 입단할 가능성은 0.8% 정도라고 한다. 대학과 고교 졸업 드래프트를 통해 100여 명이 프로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3.8%가량인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프로에 진출할 확률은 0.8%이다. 태극마크를 달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그 이상이다.

때문에 수많은 축구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나 제2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축구를 하고 싶어도 팀이 없어서 그만 뒤야 한다. 지도자 입

문 역시 하늘의 별따기인 실정이다. 제주지역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뛰어난 실력을 뽐내며 상급학교로 진학한 플레이어들이 적잖다. 그러나 상당수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있다. 다른 지방의 대학, 아마추어 팀에서 뛰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행히 K리그가 활성화되면서 하부리그의 중요성이 부각돼 팀 창단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엔 충북 청주시를 연고로 한 K리그 24번째 팀인 FC청주가 창단돼 내년 시즌부터 참가하게 된다. 이로써 K리그는 17개 시도 전체에서 운영되게 됐다. 그만큼 선수 확보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여건이 성숙해지면서 제주도축구협회의 행보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윤일 도축구협회장은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 2021년 취임한 윤 회장은 축구인 출신으로 회장을 맡기전부터 하부리그 팀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창단을 게획했다. 그리고 회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6일 성황리에 끝난 제6회 제주도축구협회장기 전도축구대회에서도 팀 창단의 당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회

엔 연령대별로 50여 개 동호인 팀이 참가했다.

뿐만 아니라 도민구단 형태의 축구팀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감안할 경우 무척내고 손사래치는 않을 것이라는 여론도 작용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정이다. 팀 창단의 키를 제주도가 갖고 있어서다. 제주도축구협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취임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팀 창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방침이다. 오 지사가 팀 창단에 대해 보고를 받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팀 운영에 따른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 확보와 선수 수급 등 선결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도 축구인들의 염원이 실현되기 위해선 지역내 여론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내 공감대 형성 역시 축구협회 등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지역 K4리그 팀 창단을 위한 휘슬이 불려질 지 축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일 회장은 "K4 구단 창단은 제주도 축구인들의 염원이다. 모든 역량 결집과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높이의 승리? 29일(현지시간) 영국 워블던의 올림피아드클럽에서 열린 워블던(총상금 4035만 파운드·약 642억3000만원) 사흘째 남자단식 2회전에서 앤디 머리(52위·영국)가 존 이스너(24위·미국)에게 1-3(4-6 6-7(4-7) 7-6(7-3) 4-6)으로 패한 뒤 악수하고 있다. 존 이스너는 키가 208cm로 현역 테니스 선수 중 미국의 레일리 오펜카(211cm)에 이어 두번째 큰 선수다.

연합뉴스

제주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

1-3일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장애인들의 수영 제전인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수영 대회가 오늘부터 3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수영연맹과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제주와 서울 등 전국 17

개 시도의 대표 선수와 임원 등 7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제장애인을 림픽위원회(IPC)의 공식인증을 받았으며, 2022항저우 아시아게임 2차 선발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기록인증 대회를 겸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는 시각과 청각, 지적 장애 등 장애별, 연령별로 진행되며, 최우수단체와 최우수선수, 신인선수, 모범단체에 대한 시상도 있게 된다.

현경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수영연맹회장은 "장애인 수영선수들의 선의의 경쟁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전문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장애인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도내 태양광 지원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올해도 태양광 지원사업은 변함없이 한 우물만 파온
검증된 참여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주택 단독 주택

공사비용 50% 무상지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혜택

고객님의 성원에 1차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2차 접수 마감일 : 6월 10일(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9호]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상가 건물

공사비용 50~75% 무상지원

- 사무실/식당/호텔/펜션/공장/학원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축산시설 무상보조금 추가 적용 혜택

접수 마감일 : 5월 31일(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8호]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